타 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에 관한 연구

정 종 수*

I. 서론	2. 부정화행
Ⅱ. 연구 대상 및 이론적 배경	3. 공감화행
Ⅲ. 자극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	4. 비공감화행
1. 진술화행	5. 응대거부화행
2. 질문화행	6. 설명질문응대화행
3. 명령화행	7. 수락화행
4. 청유화행	8. 거절화행
5. 약속화행	9. 허락화행
IV. 응대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	10. 불허화행
1. 긍정화행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타 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되는 현상을 다루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표화행을 제외한 모든 타 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될 수 있음을 보인다. 즉, 자극화행인 진술화행,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과 응대화행인 긍정화행, 부정화행, 공감화행, 비공감화행, 응대거부화행, 설명질문응대화행, 수락화행, 거절화행, 허락화행, 불허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될 수 있다는 예를 보인다. 이 중 공감화행은 그 속성상 정표화행이 원래 함축된 것임을 밝힌다. 또한 정표화행도 정표화행의 하위화행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전자우편: js1031@hanmail.net

인 기쁨화행, 슬픔화행, 놀람화행, 분노화행, 혐오화행, 공포화행 모두가 함축될 수 있다는 예를 보인다. 그리고 정표화행이 함축된 타 화행은, 정서만 나타내는 화행이나 타 화행이 함축된 정표화행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즉, 본고에서는 순수 정표화행, 순수 타화행, 타 화행을 함축한 정표화행을 연구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응대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응대화행의 직접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와 거의 응대화행으로만 사용되는 간접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자극화행에 응대화행과 정표화행이 동시에 함축된 경우는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정표화행을 함축한 타화행이 정표화행인지 타 화행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그 다음 화자의 응대에 의존함을 보인다. 즉, 그 다음 화자가 타 화행에 대하여 응대하는지, 정표화행에 대하여 응대하는지에 따라서 앞 순서의 화행이 결정됨을 보인다.

◆ 주제어 ────

화행. 정표화행. 함축. 자극화행. 응대화행

I. 서론

본 연구는 타 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되는 현상을 다루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표화행을 제외한 화행[자극화행(진술화행,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 응대화행(긍정화행, 부정화행, 응대거부화행, 설명질문응대화행, 수락화행, 거절화행, 허락화행, 불허화행)]¹⁾이 정표화행(기쁨화행, 슬픔화행, 놀람화행, 분노화행, 혐오화행, 공포화행)²⁾을 나타내는 현상과 그 특성을 살펴본다.

우리는 발화에 감정을 담을 때가 많다. 우리의 발화 속에 담겨 나오는 감정을 흔히 '뉘앙스'3'라고 하기도 한다. 뉘앙스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예민하게 포착이 되는 것으로써, 그 뉘앙스에 따라서 청자에게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뉘앙스는 운율 자질인 억양4〉, 강세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떠한 상

- (1) 이것이 만 원?
- (2) ㄱ. [[이것이]Ap [만 원]Ap]IP L L L L H% ㄴ. [[이것이]Ap [만 원]Ap]IP
 - HHH HH%
 - ㄷ. [[이것이]Ap [만 원]Ap]IP L L L H H%
 - ㄹ. [[이것이]Ap [만 원]Ap]IP L L L L L%

¹⁾ 자극화행과 응대화행의 체계는 정종수(2014)에 따랐다.

²⁾ 정표화행의 체계는 정종수 · 신아영(2013)에 따랐다.

^{3)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뉘앙스'는 '음색, 명도, 채도, 색상, 어감 따위의 미묘한 차이. 또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나 인상. '느낌', '말맛', '어감'으로 순화.'로 뜻풀이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뉘앙스'라는 말은 말에 관련된 것만을 뜻하는데, '미묘한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화행에 함축되어 있는 정표화행이 미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뉘앙스라고 한다.'라고 다시 정의내릴 수 있겠다.

⁴⁾ 이는 흔히 억양으로 나타난다. 김문수(2011: 65)에서는 (1)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질문화행(판정질문)으로 인식되나, 이를 억양을 조정하여 여러 가지 정표화행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쓰면, 그 뉘앙스가 묻어나오는 경우도 많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다루어 보도록 한다.

우리는 뉘앙스가 담겨져 나오는 발화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갈등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철수는 왜 안 왔대?"라는 감정 섞인 말에 대하여, 이것을 설명질문화행으로 파악하여 설명질문응대화행·응대 거부화행으로 응대를 해야 할지, 정표화행(혐오화행)으로 파악하여 공감화행·비공감화행으로 응대를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수는 왜 안 왔대?"라는 발화가 '설명질문응대화행'과 '정표화행'의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청자의 응대에 따라서 어떤 화행으로 받아들여져야 할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발화에 대한 갈등을 줄여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Ⅱ. 연구 대상 및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타 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의 범위를 한정하고, 본고에서 사용할 화용 체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2¬)은 저저고 조로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어서 어이없음'을 뜻하여 놀람의 정서(놀 람화행)를 담고 있고, (2ㄴ)은 고고고 조로서 '비싼 값을 부른 상인을 경멸함'을 뜻하여 혐오의 정서(혐오화행)를 담고 있고, (2ㄷ)은 저고고 조로서 '비싼 값을 주고 속아서 샀음'을 뜻하여 분노의 정서(분노화행)를 담고 있고, (2ㄹ)은 저저저 조로서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서 샀음'을 뜻하여 슬픔의 정서(슬픔화행)를 담고 있고, (2ㅁ)은 저고저고 조로 '터무니없이 싼 값이어서 횡재했음'을 뜻하며, 기쁨의 정서(기쁨화행)를 담고 있다. 이렇듯 나타내는 정서에 따라서 억양이 무척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의 연구 대상은 억양이 아니므로 이것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억양과 화행의 연관성은 주목되는 연구 주제이므로 차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ㅁ. [[이것이]Ap [만 원]Ap]IP L L H L H%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타 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이란, 정표화행이 타 화행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 (1) ㄱ.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니?
 - ㄴ. 지금 몇 시니?
 - ㄷ. 갑: 그 일은 내가 할게. / 을: 어허.

(1ㄱ)은 순수하게 정표화행의 역할만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질문화행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표화행의 간접화행으로서 기쁨화행을 나타 내는 역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돌아버리겠네.", "미치고 폴짝 뛰 겠네."와 같은 표현은 정서만을 전달할 뿐,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들은 진술화행이 정표화행을 함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정표화행의 간접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1ㄴ)은 순수한 질문화행일 수도 있고, 정표화행이 함축된 질문화행일 수도 있다. 순수한 질문화행일 경우는 아무런 정서나 의 도(뉘앙스)를 닦지 않은 채 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만약 정표화행(혐오화행)이 함축된 질문화행이라 면, 이에 대한 응답을 "5시."라고 하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대화가 될 것이다. 정표화행이 함축된 타 화행은 그것을 정표화행으로 볼 때 는 모두 타 화행의 형식을 가진 정표화행이 간접화행이 되고, 그것을 타 화 행으로 볼 때는 정표화행이 함축된 것일 뿐이므로 직접화행이 된다. (1ㄷ)의 '을'은 정표화행에 타 화행이 함축된 경우이다. 즉. 정표화행으로써 응대화행 (불허화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타 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이지. 정표화행에 함축된 타 화행이 아니다. 본고 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1ㄴ)이 정표화행이 함축된 질문화행으로 발 화되는 경우뿐이다.

응대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응대화행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대화행의 직접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와 거의 응대화행으로만 사용되는 간접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

翁本學 제29호(2016)

만 연구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자극화행에 응대화행과 정표화행이 동시에 함축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2) ㄱ. 갑: 이번엔 내가 살게. / 을: 그래.
 - ㄴ. 갑: 창문 좀 열어. / 을: 알았어.
 - ㄷ. 갑: 너 집에 가. / 을: 용서해 주세요.

(2¬을)은 응대화행인 허락화행의 직접화행이다. 응대화행의 직접화행은 설명질문응대화행을 제외하고는 감탄사로 나타난다(정종수, 2014), 그런데이 직접화행 "그래."에도 기쁨, 슬픔, 놀람, 분노, 혐오, 공포의 정서를 담을수 있고, 그래서 정표화행을 함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응대화행의 직접화행에 정표화행의 함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2ㄴ을)은 응대화행의 간접화행으로서, 응대화행의 역할만 하는 것이다⁵). 여기에 정표화행을 함축하면, 응대화행과 정표화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 (2ㄷ을)은 응대화행의 간접화행으로서, 응대화행(거절화행)과 자극화행(명령화행)과 함축된 정표화행(공포화행)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응대화행과 자극화행의 일치 현상(한 화행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화행에 정표화행까지 함축되었기 때문이다. 이 화행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극화행(명령화행)에 응대화행(거절화행)과 정표화행(공포화

⁵⁾ 간접화행으로서 응대화행의 역할만 하는 형태에는 화행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ㄱ. 긍정화행: "그렇지.(그랬지.)", "그렇구나.(그랬구나.)" 등

나. 부정화행·비공감화행: '부정어 + 선행순서 화행의 동사' 형식("안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등),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등)", "난 별로." 등

다. 응대거부화행: "진짜?(진짜야?)", "정말?(정말이야?)", "그래?", "몰라." 등

ㄹ. 수락화행: "알았어.", "그럴게.", "그러자." 등

ㅁ. 거절화행: "싫어.", "안 돼." 등

ㅂ. 허락화행: '선행순서 화행의 동사 + -으렴, -으려무나' 형식("먹으렴.", "먹으 러무나." 등), "그러렴.", "그러려무나.", "그래라." 등

스. 불허화행: "괜찮아.", "안 돼.", "그러지 마." 등

행)이 함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표화행이냐, 타 화행이냐를 판정하면, 응대화행과 정표화행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화행과 정표화행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우선시된다. 그러면 결국 자극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응대화행에 관하여 (2¬), (2ㄴ)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2ㄷ)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정표화행이 함축된 타 화행이 타 화행으로 인식되느냐, 정표화행으로 인식 되느냐는 그 다음 순서의 화자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예 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3) 갑: 철수가 어디가 아프대?을: 머리라고 그랬잖아!갑: 아, 그랬지.
- (4) 갑: 철수가 어디가 아프대?을: 머리라고 그랬잖아!(6)갑: 왜 화를 내고 그래?(7)

⁶⁾ 앞서도 밝혔듯이, 정표화행을 수반할 때는 그에 맞는 억양으로 발화할 것이다. 본고는 억양에 관한 연구가 아니므로, 용례에 억양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도 본고의 용례에 는 모두 억양이 들어가 있다고 전제하고, 용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⁷⁾ 정표를 함축하였는지, 아닌지는 화자 간 조정에 따르기도 한다. 아래는 을이 정표화행을 함축하지 않았음을 대화 조정을 통하여 밝힌 것이다.

예) 갑: 철수가 어디가 아프대?

을: 머리라고 그랬잖아.

갑: 왜 화를 내고 그래?

을: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갑: 화 낸 거 아니었어?

을: 아니야.

갑: 난 화 낸 줄 알았지. 미안.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나 대부분은 다음 화자의 판단에 따라서 선행 순서의 화행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갑'에 의해서 을의 발화가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정표화행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3)은 을의 발화가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인식된 것이고, (4)는 정표화행(혐오화행)으로 인식된 것이다. 따라서 '을'의 발화를화행으로 분석하자면, (3을)은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분석되고, (4을)은 정표화행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을'이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한 대화가 되겠지만, 앞 순서의 화행을 파악하는 것은 분석에 관련된 일이므로 대화의 성공과 실패와는 따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어질 정표화행은 정종수·신아영(201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5) 기. 기쁨화행: 기쁨화행, 감탄화행(칭찬화행 포함), 소망화행, 호감화행(존경화행, 애정화행, 환영화행, 환대화행, 축복화행, 축하화행, 감사화행 포함), 자만화행
 - L. 슬픔화행: 슬픔화행(고독화행 포함), 실망화행, 동정화행(애도화행, 위로화행 포함)
 - 다. 놀람화행: 놀람화행, 경악화행
 - ㄹ. 분노화행: 분노화행
 - ロ. 혐오화행: 혐오화행(무시화행, 저주화행, 타박화행 포함), 자책화행(한탄화행, 후회화행 포함), 8) 질투화행
 - ㅂ. 공포화행: 공포화행(걱정화행, 사과화행 포함), 수치화행, 선망화행

Ⅲ. 자극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

이 장에서는 정표화행을 제외한 모든 자극화행(진술화행, 정표화행,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될 수 있는지를 절로

⁸⁾ 정종수·신아영(2013)에서는 자책화행을 공포화행의 하위화행으로 보았으나, 자책화행은 혐오하는 대상(화자 자신)이 있는 것이므로 혐오화행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본고에서는 자책화행을 혐오화행의 하위화행으로 보고자 한다.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한다.

1. 진술화행

진술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6) ㄱ. 갑: 드디어 합격했구나! / 을: 句 응. 하하.
 - □. 갑: 철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 을: ① 그래. ① 나도 슬퍼.
 - ㄷ. 갑: 그 사람이 범인이었다니. / 을: 맞아. ⓒ 정말 놀랍군.
 - ㄹ. 갑: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 을: ⑦ 그렇구나. ◐ 흥분하지 말고.
 - □. 갑: 제 정신이 아니구먼. / 을: ① 아니야. © 너 지금 뭐라고 그랬 어?⁹⁾
 - ㅂ. 갑: 이제 난 엄마한테 죽었다. / 을: ◁ 맞아. ∁ 어떡하니?

(6¬)은 기쁨화행을, (6ㄴ)은 슬픔화행을, (6ㄸ)은 놀람화행을, (6ㄹ)은 분노화행을, (6ㅁ)은 혐오화행을, (6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진술화행의 예이다. (6¬)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6¬¬))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진술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6¬□)으로 한다면 갑의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6ㄴ)은 응대자가이에 대한 응대를 (6ㄴ¬))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진술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등대한 것이다. (6ㄸ¬))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들람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6ㄸ¬))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놀람화행으로 판단하여 공

⁹⁾ 혐오화행에 대해서 반응하는 형태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편이다. 그 예를 나열하자면, "말투가 왜 그래?", "내가 뭐 실수했나?", "너 좀 화난 거 같다.",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기분 안 좋구나?",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불만 있냐?", "너 지금 나한테화 낸 거냐?" 등이 있다.

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6ㄹ)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6æ□)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진술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6 ㄹⓒ)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6□)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6□□)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진술화행으로 판단하여 부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6□ⓒ)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전술화행으로 판단하여 부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6□ⓒ)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6 ㅂ)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6ㅂ□)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진술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6ㅂⓒ)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 질문화행

질문화행은 판정질문화행과 설명질문화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판정질문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7) ㄱ. 갑: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 을: ♡ 응. ♡ 축하해 줘서 고마워.
 - ㄴ. 갑: 많이 다쳤다면서? / 을: ⑦ 응. ◐ 너무 걱정하지 마.
 - □. 갑: 그 말 진짜야? / 을: ① 응. ①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 ㄹ. 갑: 걔가 날 속인 거야? / 을: 句 응. 흥분하지 말고.
 - □. 갑: 이게 재밌냐? / 을: ¬ 응. 왜 비꼬고 그래?
 - ㅂ. 갑: 정말 내가 암에 걸린 겁니까? / 을: ⑦ 네. ⓒ 아직 초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7¬)은 기쁨화행을, (7ㄴ)은 슬픔화행을, (7ㄷ)은 놀람화행을, (7ㄹ)은 분노화행을, (7ㅁ)은 혐오화행을, (7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판정질문화행의 예이다. (7¬)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7¬⑤)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판정질문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7¬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

□)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7ㄴ⑤)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판정질문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7ㄴ⑥)으로 한다면 갑의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ㄸ)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7ㄸ⑤)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판정질문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7ㄸ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놀람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ㄹ)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7ㄹ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판정질문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ㅁ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ㅁ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ㅁ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ㅂ)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ㅂ)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7ㅂ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ㅂ)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7ㅂ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진술화행으로 판단하여 긍정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7ㅂ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설명질문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8) ㄱ. 갑: 언제 합격했대? / 을: ⑦ 어제 발표가 났어. ◎ 축하해 줘서 고마워.
 - ㄴ. 갑: 언제 돌아가셨대? / 을: ① 어제 돌아가셨어. ⓒ 그러게.
 - □. 갑: 이걸 언제 다 했대? / 을: ① 어제. ① 그러게.
 - ㄹ. 갑: 어디가 또 고장 났어? / 을: ᄀ 엔진이. ℂ 그러게.
 - ㅁ. 갑: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 을: ① 어제. ① 화는 내지 말고.
 - ㅂ. 갑: 얼마나 더 해야 해? / 을: ⑦ 3시간 더. 불안해 하기는.

(8¬)은 기쁨화행을, (8ㄴ)은 슬픔화행을, (8ㄷ)은 놀람화행을, (8ㄹ)은 분노화행을, (8ㅁ)은 혐오화행을, (8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설명질문화행의 예이다. (8¬)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8¬¬)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설명질문화행으로 판단하여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8¬

(L))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 이다. (8ㄴ)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8ㄴ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설명질문화행으로 판단하여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8ㄴⓒ)으 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8ㄷ)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8ㄷ⑺)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설명질 문화행으로 판단하여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8ㄷㄸ)으로 한 다면 갑의 화행을 놀람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8 ㄹ)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8ㄹ⑺)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설명질문 화행으로 판단하여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8ㄹ⑴)으로 한다 면 갑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8ㅁ) 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8ㅁ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설명질문화 행으로 판단하여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8ㅁ℃)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8ㅂ)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8ㅂ①)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설명질문화행으 로 판단하여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8ㅂ亿)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3. 명령화행

명령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9) ㄱ. 갑: 합격했는데 축하해 줘. / 을: 句 알았어. ⓒ 좋아 죽는구나?
 - ㄴ. 갑: 이제 철수해라. / 을: ◁ 알았어. ∁ 너무 상심하지 마.
 - ㄷ. 갑: 어서 구해 줘. / 을: ◁ 응. ∁ 침착해.
 - ㄹ. 갑: 속도를 더 내 주세요. / 을: ⑦ 예. ⓒ 흥분하지 마세요.
 - ㅁ. 갑: 저리 꺼져. / 을: ① 싫어. 心 너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 ㅂ. 갑: 이제 그만 용서해 줘. / 을: 🗇 알았다. 🕓 너 고민 많이 했구나?

(9ㄱ)은 기쁨화행을, (9ㄴ)은 슬픔화행을, (9ㄷ)은 놀람화행을, (9ㄹ)은 분 노화행을, (9口)은 혐오화행을, (9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명령화행의 예이 다. (97)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97分)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명 령화행으로 판단하여 수락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9기C))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9ㄴ)은 응대 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9ㄴ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명령화행으로 판단 하여 수락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9ㄴⓒ)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슬픔화 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9ㄷ)은 응대자가 이에 대 한 응대를 (9ㄷ⑺)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명령화행으로 판단하여 수락화행 으로 응대한 것이고. (9ㄷĆ))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놀람화행으로 판단하 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9ㄹ)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9ㄹ ①)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명령화행으로 판단하여 수락화행으로 응대한 것 이고. (9ㄹㄴ))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 로 응대한 것이다. (9口)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가 (9口勺)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명령화행으로 판단하여 거절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0) (9□℃) 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 이다. (9ㅂ)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9ㅂ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명령화행으로 판단하여 수락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9ㅂ℃)으로 한다면 갑 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4. 청유화행

청유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0) ㄱ. 갑: 지금 당장 결혼하자. / 을: ۞ 그래. ⓒ 너무 좋아하는 거 아냐?

^{10) &}quot;나한테 명령하지 마."라고 응대했더라도, 선행 순서의 화행을 명령화행으로 인식한 것이다.

- ㄴ. 갑: 우리 그만 포기하자. / 을: ⑦ 그래. 心 너무 힘들었지?
- □ . 집: 철수가 물에 빠졌어. 빨리 물에 뛰어들자. / 을: □ 년 수영 못하 잖아. □ 침착해.
- ㄹ. 갑: 오늘 밤 새자. / 을: □ 그래. Û 왜 이렇게 흥분했어?
- ㅁ. 갑: 말을 말자. / 을: ① 알았어. 🔾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 ㅂ. 갑: 여기서 그만 빠져 나가자. / 을: ① 그래. ① 너 겁먹었구나?

(10¬)은 기쁨화행을, (10□)은 슬픔화행을, (10□)은 놀람화행을, (10□) 은 분노화행을. (10口)은 혐오화행을. (10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청유화행 의 예이다. (10ㄱ)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0ㄱ⑺)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청유화행으로 판단하여 수락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0기요)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0ㄴ)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0ㄴ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청유 화행으로 판단하여 수락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0ㄴⓒ)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0ㄷ)은 응대 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0ㄷ勺)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청유화행으로 판단 하여 거절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0ㄷ૦)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놀람화 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0ㄹ)은 응대자가 이에 대 한 응대를 (10ㄹ勺)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청유화행으로 판단하여 수락화 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0cc))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 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0口)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0미의)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청유화행으로 판단하여 수락화행으로 응대 한 것이고. (10ㅁⓒ)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 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0ㅂ)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0ㅂ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청유화행으로 판단하여 수락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H(L))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 대한 것이다.

5. 약속화행

약속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1) ¬. 갑: 오늘은 내가 살게. / 을: ۞ 그래. ⓒ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본데? ㄴ. 갑: 이제 그만 사업 접을게. / 을: ۞ 포기하지 마. ⓒ 네가 너무 힘들 구나.
 - □. 갑: 내가 구해 줄게. / 을: ⑦ 그래. Û 침착해.
 - ㄹ. 갑: 내가 처리할게. / 을: ⑦ 그래. Û 너무 흥분하지 마.
 - ㅁ. 갑: 너 죽는다. / 을: ① 알았어. ① 나한테 화 내지 마.
 - ㅂ. 갑: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 을: ◁ 그만 해. ◐ 두려워하지 마.

(11ㄱ)은 기쁨화행을. (11ㄴ)은 슬픔화행을. (11ㄷ)은 놀람화행을. (11ㄹ) 은 분노화행을, (11口)은 혐오화행을, (11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약속화행 의 예이다. (11ㄱ)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1ㄱ⑺)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약속화행으로 판단하여 허락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1ㄱ①)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1ㄴ)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1ㄴ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약속 화행으로 판단하여 불허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1ㄴㄸ)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1ㄷ)은 응대 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1ㄷ勺)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약속화행으로 판단 하여 허락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1ㄷ૦)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놀람화 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1ㄹ)은 응대자가 이에 대 한 응대를 (11ㄹ⑴)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약속화행으로 판단하여 허락화 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1ㄹ℃)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 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1ㅁ)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1ㅁ⑤)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약속화행으로 판단하여 허락화행으로 응대 한 것이고. (11ㅁㄸ)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

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11) (11ㅂ)은 응대자가 이에 대한 응대를 (11ㅂ⑤)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약속화행으로 판단하여 불허화행으로 응대한 것이고, (11ㅂ⑥)으로 한다면 갑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Ⅳ. 응대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

이 장에서는 응대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을 살펴보도록 한다. 응대화행은 긍정화행, 부정화행, 공감화행, 비공감화행, 응대거부화행, 설명질문응대화행, 수락화행, 거절화행, 허락화행, 불허화행으로 나뉜다. 하나하나 절을 나누어 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긍정화행

긍정화행은 진술화행과 판정질문화행의 응대화행이다. 긍정화행에 정표화 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한다.

- (12) ¬. 갑: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어. / 을: 그랬구나. 12) / 갑: 句 너 이제 어디 놀러나 가야겠다. 축하해 줘서 고마워.
 - □. 갑: 철수가 시험에 떨어졌대. / 을: 그랬구나. / 갑: ⑦ 전화해서 철수 위로 좀 해 줘. ⑥ 네가 더 슬퍼하는 것 같네.
 - □. 갑: 철수가 복권에 당첨됐대. / 을: 그랬구나? / 갑: 句 철수가 차부터 바꾼대. ① 놀랍지?

¹¹⁾ 위의 예는 경고화행의 예이다. 정종수(2013)에서 다루어지듯이, 경고화행은 약속화행의 하위화행으로 본다.

^{12) &}quot;축하해."라는 응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응대는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긍정화행에 함축된 정표화행이 아니라, 정표화행(기쁨화행)에 함축된 긍정화행이기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다.

- 리. 갑: 차 시동이 또 안 걸리네. / 을: 그래. / 갑: ⑦ 차를 바꾸든가 해야지. 짜증나지?
- □. 갑: 이번에도 또 망했어. / 을: 그러게. / 갑: 句 네 말을 들을걸. Û 타박하지 마.
- ㅂ. 갑: 철수가 널 벼르고 있대. / 을: 그렇구나. / 갑: ⑦ 집에서 나오지 마. ℂ 너무 걱정하지 마.

(12ㄱ)은 기쁨화행을, (12ㄴ)은 슬픔화행을, (12ㄷ)은 놀람화행을, (12ㄹ) 은 분노화행을. (12ㅁ)은 혐오화행을. (12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긍정화행 의 예이다. (12ㄱ)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2ㄱ勺)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 을 긍정화행으로 판단하고 긍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2¬℃)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2L)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2L¬))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긍정화행 으로 판단하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2LC))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2ㄷ)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2⊏分)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긍정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2ㄷㄸ))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놀람화 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2ㄹ)은 갑이 을에 대한 응 대를 (12=勺))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긍정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2ㄹ(니))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 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2ㅁ)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2ㅁ句) 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긍정화행으로 판단하고 정표화행(혐오화행-후회화 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2□□)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 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2ㅂ)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 를 (12ㅂ⑺)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긍정화행으로 판단하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2日心)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 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 부정화행

부정화행은 진술화행과 판정질문화행의 응대화행이다. 부정화행에 정표화 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한다.

- (13) ¬. 갑: 이번 시험에 떨어졌니? / 을: 아니. / 갑: 句 오, 축하해. ⓒ 다 합 격하는 거 가지고 좋아하기는.
 - ㄴ. 갑: 이번 시험에 합격했지? / 을: 아니. / 갑: ① 그렇구나. ① 미안해.
 - □. 갑: 월급이 500만 원은 되지? / 을: 아니! / 갑: ⑦ 안 되는구나? ⑥놀라기는.
 - 리. 갑: 사모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 을: 아니라니까! / 갑: 句어, 아니신가 봐요. ① 제가 뭐 실수했나요?
 - □. 갑: 네가 잘못했네. / 을: 그게 무슨 말이야? / 갑: ⑦ 네가 먼저 걔 한테 욕했다며? ② 내가 괜히 네 심기를 건드렸구나?
 - ㅂ. 갑: 도자기를 네가 깼니? / 을: 저는 정말 아니에요. / 갑: ⑦ 그럼 누가 깼을까? ⑥ 목소리가 떨리는데?

(13¬)은 기쁨화행을, (13ㄴ)은 슬픔화행을, (13ㄸ)은 놀람화행을, (13ㅌ)은 분노화행을, (13ㅁ)은 혐오화행을, (13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부정화행의 예이다. (13¬)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3¬¬))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부정화행으로 판단하고 정표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3¬□)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3ㄴ)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3ㄴ¬))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부정화행으로 판단하고 긍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3ㄴ□)13)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3ㄷ)은 갑

¹³⁾ 이는 영어권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I'm sorry."라고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국어에서도 요즘 자주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안하다는 것이 슬프게 해서(슬픈 기억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뜻이 있으므로, 선행 순서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이 을에 대한 응대를 (13ㄷ⑤)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부정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3ㄷ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놀 람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3ㄹ)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3ㄹ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부정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3ㄹ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3ㅁ)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3ㅁ⑤)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부정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3ㅁ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3ㅂ)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3ㅂ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부정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당대한 것이다. (13ㅂ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부정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3ㅂ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3. 공감화행

공감화행이란, 정표화행에 대한 긍정적인 응대이다. 공감화행은 선행순서의 정표화행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정표화행을 함축하고있다는 것이 타 화행과는 다른 점이다. 즉, 공감화행은 정표화행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화맥에 따라서 정표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그 자체가 정표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이 다른 화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공감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되건 함의되건, 상대가 그것을 공감화행이라고 판단할지, 정표화행이라고 판단할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화행과 동일하다. 공감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한다.

- (14) ¬. 갑: 진짜 웃긴다. / 을: 그러게. / 갑: 句 배우 연기도 끝내주던데? ⑥ 배꼽 빠지겠네.
 - ㄴ. 갑: 이 영화 진짜 슬프다. / 을: 그러게. / 갑: ① 스토리도 괜찮았

지? ① 나도 눈물 나.

- □. 갑: 깜짝이야. / 을: 그러게. / 갑: ① 방금 그거 고양이였지? 진짜 놀랐네.
- ㄹ. 갑: 아이씨. / 을: 그러게. / 갑: □ 이거 빨리 수습하자. □ 망했네.
- □. 갑: 걔는 왜 그리 싸가지가 없냐? / 을: 그러게. / 갑: ⑦ 그에 비하면 영희는 천사야. ⑥ 걔는 진짜 나쁜 놈이야.
- ㅂ. 갑: 이 영화 너무 무섭다. / 을: 그러게. / 갑: ⑦ 스토리도 좋았어.⑥ 아직까지 소름 돋아.

(14ㄱ)은 기쁨화행을. (14ㄴ)은 슬픔화행을. (14ㄷ)은 놀람화행을. (14ㄹ) 은 분노화행을. (14口)은 혐오화행을. (14ㅂ)은 공포화행을 함의한 공감화행 의 예이다. (14ㄱ)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가 (14ㄱ勺)이 된다면 을의 화행을 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4¬ℂ)이 된다 면 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4ㄴ) 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가 (14ㄴ句)이 된다면 을의 화행을 공감화행으로 판 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4ㄴㄴ)이 된다면 을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4ㄷ)은 갑이 을에 대 한 응대가 (14ㄷ⑺)이 된다면 을의 화행을 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 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4cc)이 된다면 을의 화행을 놀람화행으로 판 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4ㄹ)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가 (14ㄹ ①)이 된다면 을의 화행을 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청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4cC)이 되다면 을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 로 응대한 것이다. (14ㅁ)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가 (14ㅁ⑤)이 된다면 을의 화행을 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4口①) 이 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갂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4ㅂ)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가 (14ㅂ①)이 된다면 을의 화행을 공감화행으 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4ㅂ亿)이 되다면 음의 화 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4. 비공감화행

비공감화행은 정표화행의 부정적인 응대화행이다. 비공감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한다.

- (15) ¬. 갑: 너무 슬프다. / 을: 난 별로. / 갑: 句 슬픈 이야기지. ⓒ 웃을 것 까지는 없잖아?
 - 나. 갑: 진짜 웃긴다. / 을: 난 별로. / 갑: ① 웃기지 않니? Û 슬퍼할 것까지는 없잖아?
 - □. 갑: 철수가 합격한 게 참 다행이야. / 을: 뭐야? / 갑: ① 철수도 노력했어. 놀라기는.
 - □. 잡: 되게 웃기지 않냐? / 을: 난 별로. / 잡: ① 웃기지 않니? 뭐안 좋은 일 있었니?
 - □. 갑: 하하하. / 을: 뭐가 웃기냐? / 갑: ① 난 웃긴데? Û 왜 나한테 지 랄이야.
 - ㅂ. 갑: 쟤 놀려먹으니 재밌다. / 을: 난 별로야. / 갑: ⑦ 쟤 바보 같은 표정 좀 봐. Û 너 왜 착한 척하고 그래?

(15¬)은 기쁨화행을, (15¬)은 슬픔화행을, (15¬)은 놀람화행을, (15¬)은 분노화행을, (15¬)은 혐오화행을, (15¬)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비공감화행의 예이다. (15¬)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5¬¬))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비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5¬¬□)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5¬¬)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5¬¬)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비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5¬¬□)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5¬¬)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5¬¬)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비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5¬¬□)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비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5¬□)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놀람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5¬□)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5æ)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비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5æ)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5□)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5□)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비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정표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5□)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5ㅂ)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5ㅂ)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비공감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5ㅂ)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5. 응대거부화행

응대거부화행은 진술화행, 판정질문화행, 설명질문화행의 응대화행이다. 응대거부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한다.

- (16) ¬. 갑: 시험 잘 봤니? / 을: 글쎄. / 갑: ¬ 잘 봤냐고? 좋아하는 걸 보니 잘 봤구나?
 - 나. 갑: 사업 부도 소식은 언제 들었니? / 을: 몰라. / 갑: ⑦ 언제 들었냐고? Û 너무 좌절하지 마.
 - ㄷ. 갑: 철수도 시험에 합격했대. / 을: 음. / 갑: 진짜야. ℂ 놀랐지?
 - □. 갑: 시험 잘 봤니? / 을: 몰라. / 갑: ① 왜, 못 봤어? Û 기분 안 좋구나?
 - ㅁ. 갑: 너 왜 왔니? / 을: 몰라. / 갑: ① 왜 왔냐고? ① 말투가 왜 그래?
 - ㅂ. 갑: 철수가 널 벼르고 있대. / 을: 음. / 갑: ⑦ 진짜야. Û 너무 걱정 하진 마.

(16¬)은 기쁨화행을, (16¬)은 슬픔화행을, (16¬)은 놀람화행을, (16¬)은 분노화행을, (16¬)은 혐오화행을, (16¬)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응대거부화행의 예이다. (16¬)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6¬¬)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응대거부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6기 (L))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 이다. (16ㄴ)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6ㄴ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응 대거부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6ㄴⓒ)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6ㄷ)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6ㄷ⑺)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응대거부 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6ㄷ①)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놀람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6ㄹ)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6ㄹ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응대거부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6=C))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 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6ㅁ)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6ㅁ)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응대거부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6口心)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 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6ㅂ)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6ㅂ分)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응대거부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 핸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6HC))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6. 설명질문응대화행

설명질문응대화행은 설명질문화행의 응대화행이다. 설명질문응대화행은 감 탄사로 직접화행을 발화하는 타 응대화행과는 달리 진술화행의 형식으로 직 접화행을 발화한다. 그래서 응대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되었을 경우, 응대화 행으로 판단하느냐 정표화행으로 판단하느냐는 진술화행의 형식에서 판단해 야 한다. 감탄사나 응대화행만을 나타내는 간접화행에서 판단해야 하는 타 응대화행과는 이 점에서 다르다. 설명질문응대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 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한다.

- (17) ¬. 갑: 시험 몇 점 받았니? / 을: 만점! / 갑: 句 만점자 몇 명이니? Û 와. 우리 아들 최고.
 - ㄴ. 갑: 너 왜 우니? / 을: 아버지가 위암 말기래. / 갑: ⑤ 그렇구나. ⑥ 아이고, 어쩌니.
 - □. 갑: 이 많은 걸 누가 다 했니? / 을: 여기에 철수밖에 없었어. / 갑:□ 그렇구나. □ 개 혼자 했다고?
 - □. 갑: 너 언제 왔니? / 을: 길이 막혀서 방금 왔어. / 갑: ① 그랬구나.○ 짜증 날 만도 하네.
 - □. 갑: 너 언제 왔니? / 을: 어제 왔다고 몇 번을 말해? / 갑: □ 아, 그 랬지. ○ 왜 화를 내고 그러니?
 - ㅂ. 갑: 몇 대 맞을래? / 을: 한 3대요. / 갑: 句 종아리 걷어라. ◎ 사내 녀석이 벌벌 떨기는.

(17¬)은 기쁨화행을, (17ㄴ)은 슬픔화행을, (17ㄸ)은 놀람화행을, (17ㄹ)은 분노화행을, (17ㅁ)은 혐오화행을, (17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설명질문 응대화행의 예이다. (17¬)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7¬¬))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7¬□)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7ㄴ)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7ㄴ¬))으로 한다면을 의 화행을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판단하고 긍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7ㄴ□)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7ㄷ□)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7ㄷ¬))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판단하고 긍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7ㄷ□)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놀람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7ㄹ)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7ㄹ¬))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판단하고 긍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7ㄹ□)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판단하고 긍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7ㄹ□)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질문용대화행으로 판단하고 긍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7ㄹ□)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질문용대화행으로 판단하고 긍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7ㄹ□)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명으로 한다면을의 화행을 설

명질문응대화행으로 판단하고 긍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7口ⓒ)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7ㅂ)은 같이 을에 대한 응대를 (17ㅂ⑦)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설명질문응대화행으로 판단하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7ㅂⓒ)으로한다면 을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7. 수락화행

수락화행은 명령·청유 화행의 응대화행이다. 수락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 된 경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하다.

- (18) ¬. 갑: 이거 네가 가져. / 을: 그래. / 갑: ⑦ 대신 다른 건 영희한테 준다. ◎ 좋아하기는.
 - □. 갑: 이제 그만 포기해라. / 을: 그래. / 갑: ⑦ 그렇게 알고 있을게.□ 너무 낙담하지 마.
 - □. 갑: 너 집에 가. / 을: 으응. / 갑: □ 어서 빨리 가. □ 예상 못했구나?
 - □. 갑: 이걸 다 해야 해. / 을: 알았어. / 갑: ① 서둘러서 해. 짜증 내지 말고.
 - □. 갑: 너 집에 가. / 을: 알았어, 새끼야. / 갑: ⑦ 빨리 가. ⑥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 ㅂ. 갑: 가진 돈 다 내 놔. / 을: 알았어요. / 갑: ⑦ 이것뿐이야? ⓒ 자식, 쫄기는.

(18¬)은 기쁨화행을, (18ㄴ)은 슬픔화행을, (18ㄸ)은 놀람화행을, (18ㄹ)은 분노화행을, (18ㅁ)은 혐오화행을, (18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수락화행의 예이다. (18¬)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8¬¬)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수락화행으로 판단하고 약속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8¬०)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8ㄴ)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8ㄴ⑤)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수락화행으로 판단하고 허락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8ㄴ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8ㄸ)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8ㄸ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수락화행으로 판단하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8ㄸ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놀 람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8ㄹ)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8ㄹ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수락화행으로 판단하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8ㄹ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8ㅁ)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8ㅁ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부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8ㅁ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8ㅂ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8ㅂ)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8ㅂ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수락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8ㅂ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8. 거절화행

거절화행은 명령·청유 화행의 응대화행이다. 거절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 된 경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한다.

- (19) ¬. 갑: 저 대신 이 상을 받아 주십시오. / 을: 괜찮습니다. / 갑: ⑦ 꼭 좀 받아 주십시오. ℚ 허허.
 - □. 갑: 너 집에 가. / 을: 안 돼. / 갑: □ 그만 가. □ 나도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
 - □. 갑: 너 집에 가. / 을: 안 돼. / 갑: ⑦ 그만 가. ⑥ 놀라게 해서 미안한 데, 사람들이 너를 싫어해.
 - ㄹ. 갑: 이제 그만 포기해. / 을: 안 돼. / 갑: 句 더 이상 가망이 없어. ⓒ

화 낸다고 될 일이 야냐.

- □. 갑: 너 집에 가. / 을: 싫어, 새끼야. / 갑: ① 나 먼저 간다. Û 너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 ㅂ. 갑: 돈 내 놔. / 을: 안 돼. / 갑: ① 맞기 전에 내 놔. ① 자식, 쫄기는.

(19ㄱ)은 기쁨화행을, (19ㄴ)은 슬픔화행을, (19ㄸ)은 놀람화행을, (19ㄸ) 은 분노화행을. (19口)은 혐오화행을. (19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거절화행 의 예이다. (19ㄱ)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9ㄱ勺)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 을 거절화행으로 판단하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9¬℃)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9ㄴ)은 갑이 읔에 대한 응대를 (19ㄴ句)으로 한다면 읔의 화행읔 거절화행 으로 판단하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9ㄴㄸ)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9ㄷ)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9℃))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거절화행으로 판단하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9ㄷㄸ))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놀람화 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9ㄹ)은 갑이 을에 대한 응 대를 (19ㄹ의)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거절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9ㄹ①)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 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9口)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9口 ①)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거절화행으로 판단하고 약속화행으로 대화를 이 은 것이고, (19□□)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 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9ㅂ)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19ㅂ分)으로 한 다면 을의 화행을 거절화행으로 판단하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19HC))으로 하다면 읔의 화행읔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 대한 것이다.

9. 허락화행

허락화행은 약속화행의 응대화행이다. 허락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한다.

- (20) ㄱ. 갑: 이번엔 내가 살게. / 을: 그래. / 갑: ① 그래. 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냐?
 - 나. 갑: 돈 대신 네가 아끼는 차를 가져갈 거야. / 을: 그렇게 해. / 갑:① 그래. 울기 전에 돈을 갚았어야지.
 - □. 갑: 어머니, 이제 맘 잡고 공부할게요. / 을: 그, 그러렴. / 갑: 句 네.□ 이게 놀랄 일이에요?
 - 리. 갑: 오늘 경기 취소됐다고 전할게. / 을: 그러든가. / 갑: 句 어쩔 수 없잖아. ⓒ 흥분하지 말고.
 - □. 갑: 이거 내가 가져갈게. / 을: 그래, 새끼야. / 갑: 句 이것만 가져 갈 거야. ⓒ 기분 나쁘냐?
 - ㅂ. 갑: 못하면 죽는다. / 을: 알겠습니다. / 갑: ⑦ 그래. ⑥ 목소리에 힘이 없구먼.

(20¬)은 기쁨화행을, (20ㄴ)은 슬픔화행을, (20ㄸ)은 놀람화행을, (20ㅌ)은 분노화행을, (20ㄸ)은 혐오화행을, (20ㅂ)은 공포화행을 함축한 허락화행의 예이다. (20¬)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0¬¬)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허락화행으로 판단하고 수락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0¬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0ㄴ)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0ㄴ¬)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허락화행으로 판단하고 수락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0ㄴ⑥)으로 한다면 을의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0ㄸ)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0ㄸ¬)으로 한다면 을의화행을 허락화행으로 판단하고 수락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한다면 을의화행을 눌락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0ㄸ⑥)으로 한다면 을의화행을 놀라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0ㅌ)은 갑이 을에 대

한 응대를 (20년) 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허락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0년) 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0巾)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0巾) 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허락화행으로 판단하고 약속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0巾) 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0ㅂ)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0ㅂ) 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허락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0ㅂ) 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0ㅂ) 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10. 불허화행

불허화행은 약속화행의 응대화행이다. 불허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다음 예에서 을로 제시한다.

- (21) ¬. 갑: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게. / 을: 괜찮아. / 갑: 句 괜찮기는. © 목소리는 밝은데?
 - ㄴ. 갑: 나도 돈이 궁하지만, 좀 빌려줄게. / 을: 괜찮아. / 갑: ⑦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되겠지. ⑥ 너무 낙담하지 마.
 - □. 갑: 난 이 일에서 그만 빠질게. / 을: 안 돼. / 갑: 句 빠지게 해 줘. ⓒ 놀랐겠지만, 난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 ㄹ. 갑: 이번 순서를 바꿀게. / 을: 안 돼. / 갑: 句 왜? ◐ 흥분하지 말고.
 - □. 갑: 이건 내가 가질게. / 을: 안 돼. / 갑: ① 저번엔 네가 가져갔잖아. Û 너 지금 나한테 화 낸 거냐?
 - ㅂ. 갑: 이제 그만 지원을 중단해야겠어. / 을: 제발 그러지 마세요. / 갑: ⑦ 우리 사정도 안 좋아. ◎ 질질 짜 봐야 소용없어.

(21 ¬)은 기쁨화행을, (21 ь)은 슬픔화행을, (21 ь)은 놀람화행을, (21 ь)은 분노화행을, (21 ь)은 혐오화행을, (21 ь)은 공포화행을 한축한 불허화행

의 예이다. (21기)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1기団)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 을 불허화행으로 판단하고 부정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1¬C))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기쁨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1ㄴ)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1ㄴ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불허화행 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1LC))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슬픔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1ㄷ)은 갑 이 을에 대한 응대를 (21ㄷ勺)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불허화행으로 판단하 고 명령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1ㄷㄴ))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놀 람화행으로 판단하여 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1ㄹ)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1ㄹ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불허화행으로 판단하고 질문화행으 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1=①)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분노화행으로 판 단하여 비공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1口)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1 ㅁ⑤)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불허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고. (21ㅁㄸ))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혐오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 감화행으로 응대한 것이다. (21ㅂ)은 갑이 을에 대한 응대를 (21ㅂ句)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불허화행으로 판단하고 진술화행으로 대화를 이은 것이 고. (21ㅂ亿))으로 한다면 을의 화행을 공포화행으로 판단하여 비공감화행으 로 응대한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정표화행이 정표화행 외의 화행에 함축될 수 있음과 그양상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밝힌 사항은 세부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표화행을 제외한 모든 타 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될 수 있음을 보였다. 즉, 자극화행인 진술화행,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과 응대화행인 긍정화행, 부정화행, 공감화행, 비공감화행, 응대거부화행, 설명질문

응대화행, 수락화행, 거절화행, 허락화행, 불허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될 수 있음을 예를 통하여 밝혔다. 그런데 응대화행의 하위화행인 공감화행은 화행특성상 그 자체가 정표화행이 함축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정표화행도 정표화행의 하위화행인 기쁨화행, 슬픔화행, 놀람화행, 분노화행, 혐오화행, 공포화행 모두가 타 화행에 함축될 수 있음을 예를 통하여 보였다.

둘째, 정표화행이 함축된 타 화행은 정서만 나타내는 화행이나 타 화행만 나타내는 화행이나 타 화행이 함축된 정표화행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다시 말하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표화행이 함축된 타 화행은 순수 정표화행과 순수 타 화행과 타 화행이 함축된 정표화행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예를 통하여 밝히며,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정표화행이 함축된 타 화행은 그것을 정표화행으로 볼 때는 모두 타 화행의 형식을 가진 간접화행이 되고, 그것을 타 화행으로 볼 때는 정표화행이 함축된 것일뿐이므로 직접화행이 된다는 점도 밝혔다.

셋째, 응대화행에 정표화행이 함축된 경우는, 응대화행의 직접화행에 정표 화행이 함축된 경우와 거의 응대화행으로만 사용되는 간접화행에 정표화행 이 함축된 경우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극화행에 응대화행과 정표화행이 동시에 함축된 경우는 자극화행과 정표화행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어서 결 국 자극화행의 경우와 중복되기에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넷째, 정표화행을 함축한 타 화행이 정표화행인지, 타 화행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그 다음 화자의 응대에 달렸음을 보였다. 즉, 그 다음 화자가 타화행에 대하여 응대하는지, 정표화행에 대하여 응대하는지에 따라서 앞 화행의 화행이 결정됨을 보였다. 이것은 대화 성공과 실패와는 따로 판단하여야할 문제임도 밝혔다.

※ 이 논문은 2016년 3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4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계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문수, 『대학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스킬』, 비즈프레스, 2011.
- 박용익, 『대화분석론(개정증보판)』, 역락, 2001.
- 이필영, 「국어의 응답 표현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9, 71~106쪽.
- 장경희, 「국어의 인지 양태」, 한국학논집 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5.
- 장경희, 「진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의미학』 5, 한국어의미학회, 1999, 311~332쪽.
- 장경희, 「판정 질문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의미학』 7, 한국어의미학회, 2000, 149~174쪽.
- 장경희, 「청유 화행에 대한 수락과 거절」, 『텍스트언어학』 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2, 111~143쪽.
- 정종수·신아영, 「정표화행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 인문과학 연구소, 2013, 259~286쪽.
- 정종수, 「한국어 약속화행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33, 경성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13, 29~47쪽.
- 정종수, 「응대화행의 간접화행에 관한 연구」, 『언어연구』 29-4, 한국현대언어학회, 2014, 795~808쪽.
- S.C.Levinson,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이익환 외 역, 『화용론』, 한신문화사, 1992.)
- Searle, J. R., Speech Act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Publishing, 1969.
- Searle, J. R.,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 1976, pp. 1~23.

M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ve speech-acts Implicated by Other speech-acts

Jeong, Jong-su

This study is aimed to define the phenomenon that other speech-acts implicate the expressive speech-acts and do research on those specificity. This study reveal that all other speech-acts except for the expressive speech-acts can implicate the expressive speech-acts. In other words, it appear that all stimulating speech-acts, 'the statement speech-acts, the expressive speech-acts, the question speech-acts, the command speech-acts, the proposing speech-acts, the promise speech-acts' and all responsive speech-acts, 'the affirming speech-acts, the denying speech-acts, the rejecting response speech-acts, the description question response speech-acts, the non-sympathizing speech-acts, the accepting speech-acts, the refusing speech-acts, the allowing speech-acts, the non-allowing speech-acts', the implicate expressive speech-acts through examples. But the sympathizing speech-acts do not implicate the expressive speech-acts but entail the expressive speech-acts. About the expressive speech-acts, its appear that all expressive speech-acts, 'the pleasure speech-acts, the sadness speech-acts, the surprisal speech-acts, the anger speech-acts, the hatred speech-acts, the fear speech-acts', are implicated through examples. And this study clarify

續套學 제29호(2016)

that other speech-acts to implicate the expressive speech-act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ure expressive speech-acts and the expressive speech-acts to implicate other speech-acts. Finally, which other speech-acts implicate the expressive speech-acts is the expressive speech-acts or other speech-acts depends on the other speaker's responsive speech-acts. In other words, what speech-acts of prior turn to be depend on whether for the other speaker to respond it as the expressive speech-acts or for the other speaker to respond it as other speech-acts.

Keywords: the speech-acts, the expressive speech-acts, implicature, the stimulating speech-acts, the responsive speech-acts